

과학 영재 관찰·추천 선발 방식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및 개선 방안

방미선 · 김용권
(부산교육대학교)

The Teachers' Recognition and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n Selection of Gifted Students in Science Using Teachers' Observation and Nomination

Bang, Mi Seon · Kim, Yong Gw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achers' recognition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of teacher's observation and nomination used to select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Science in the Busan Metropolitan School District in 2013 by investigating teachers' recognition of the system and their expressed nee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observed that teachers are of the opinion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ience gifted students by observation due to their lack of expertise in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the lack of a check list to use, and the difficulty of ensuring the objectivity of the results of the determination. Second, the absence of objective screening tools used for the selection, the selection of gifted students based on their subjective judgment, and the possibility to select students based only on visible manifestations of ability may cause parents to mistrust the system. Thus, institutional support is required to address the concerns of teachers and parents. Third, the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observation, nomination, selection and determination need to be trained. After that, at least one of these teachers should be assigned in each school and training should operate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Lastly, while these things are occurring, the process of observation and nomination of by teachers, which is the basis of pooling gifted students at the level of Busan Metropolitan School District,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 teachers' observation and nomination, the improvement of system, gifted students, teachers' recognition

I. 서 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 사람의 영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믿음으로 영재 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와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집중 투자하고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1997년 대학 부설 과학 영재 교육 센터의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수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년별로 영재 교육 대상자를 1%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영재 교육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013.4.10(접수), 2013.4.23(1심통과), 2013.5.24(최종통과)

E-mail: dragon@bnu.ac.kr(김용권)

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발표를 한 후, 교육 현장에서의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지금까지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영재성 검사와 학문적 검사로 이루어진 지필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필 평가 위주의 영재 선발 방식은 표준화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잠재력을 가진 아동을 발굴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을 지녔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푸는 훈련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지필 평가 위주의 영재 선발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제2차 영재 교육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재 판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재성 측정 중심으로 선발을 강화하고, 교사 추천 강화 및 영재성 측정 강화로 잠재 능력을 지닌 아동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로 사교육, 선행 학습 효과를 최소화하고, 소외 계층의 영재성 발굴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이신동 등, 2009). 이러한 영재 판별 방식의 변화는 2011학년도 대학부설 영재 교육원, 지역 교육청 산하 지역 공동 영재 학급에서 관찰·추천 제도를 통해 영재 선발이 이루어졌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교사들의 영재 아동 관찰·추천 평가를 영재 교육 대상자의 전체 선발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성 판별이 대상 아동의 영재적 행동 특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Renzulli & Delcourt, 1986; Siegle & Powell, 2004).

이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2013학년도 영재 학급과 영재 교육원의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지필 평가 위주의 아동 선발에서 교사 관찰 추천 중심의 아동 선발로 개선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필 평가 위주의 선발 제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최호성,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관찰·추천제에 주체로 참여하는 담임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교사 관찰·추천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사 관찰·추천제 도입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사 관찰·추천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관찰·추천제와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 관찰·추천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교사 관찰·추천제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 영재 교사 관찰·추천 선발 방식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과학 영재의 정의 및 특성, 과학 영재 아동의 판별,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3~6학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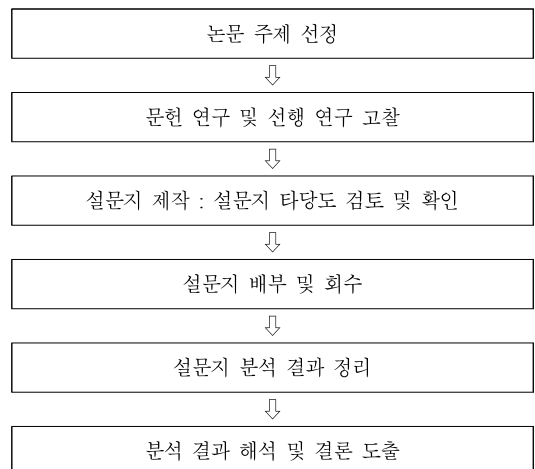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2.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 관찰·추천제에 참여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3~6학년 담임 교사이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총 794부를 배포하여 2012년 10월 8일~2012년 10월 20일까지 취합하였다. 그 중 693부(87.3%)가 회수되었고, 이 중 1, 2학년 담임교사가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678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설문지 참여 대상자들 중 남교사는 182명(26.8%), 여교사는 496명(73.2%)으로 여교사의 응답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의 교사가 279명(41.2%)로 가장 많았고, 교사 관찰·추천제 관련 선발 연수를 받은 교사는 126명(18.6%), 그리고 영재 업무 및 영재 교육 담당 경험이 있는 교사는 197명(29.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영재 업무 및 영재 교육 경험이 있는 남교사는 40.6%, 여교사는 32.3%로 나타났으며, 선발 연수를 받은 남교사는 29.1%, 여교사는 14.7%로 나타났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재 업무 및 영재 교육 경험과 선발 연수에 있어서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N:명)

구분	항목	빈도 (N)	퍼센트 (%)
성별	남	182	26.8
	여	496	73.2
교육경력	5년 미만	71	10.5
	5년 이상~10년 미만	107	15.8
	10년 이상~15년 미만	169	24.9
	15년 이상~20년 미만	52	7.7
	20년 이상	279	41.2
영재선발 연수이수	있다	126	18.6
	없다	552	81.4
영재업무 및 영재교육 담당경험	있다	197	29.1
	없다	481	70.9

표 2. 성별에 따른 교사의 특성 [N:명(%)]

구분	성별	성별		χ^2
		남자	여자	
영재업무 교육경험	N			$\chi^2=4.158$
	있다	234 (40.6)	160 (32.3)	$p=0.041$
	없다	444 (59.4)	336 (67.3)	
선발연수	N			$\chi^2=18.255$
	있다	126 (29.1)	73 (14.7)	$p=0.000$
	없다	522 (70.1)	423 (85.3)	
합계		678	182	496

이는 김인숙(2012)의 연구에서 영재 교육의 관심도와 이해도, 영재 교육 이해 총점 모두에서 응답자 중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재 교사의 비율이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많고 1정 연수를 받은 후 받은 후부터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는 학교 현장을 반영한다는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설문지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의 근거로 작용한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전소영(2011), 윤진경(2010)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교육학 및 영재 교육 전공자 9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하였다. 2013학년도 교사 관찰·추천제에 참여한 교사의 인식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각 영역별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K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다중 응답의 경우 다중 분석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별 응답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성별·교사들의 영재 업무 및 영재 교육 담당 경험·선발 연수 경험 유무에 따른 각 문항별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독립성 검증(chi-square independence test)을 실시하여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3. 연구 도구의 구성 내용

영역	설문지의 내용	문항 번호
인적 사항 (5문항)	· 성별	1
	· 교육 경력	2
	· 담임 학년	3
	· 영재 업무 및 영재 교육 담당 경험 유무	4
	· 교사 관찰·추천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관련 연수 이수	5
교사 관찰 · 추천제와 과학영재 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 (7문항)	·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의 인지	1
	·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의 이해 정도	2
	· 교사가 중요시하는 과학 영재 아동의 행동 특성	5
	· 교사가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유형	6
	· 교사의 과학 분야에서의 아동의 영재성 판별 가능성	7
	·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의 활용성	4
· 추천 아동 수 제한에 의한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10	
교사 관찰 · 추천제 시행에 대한 교사의 요구 (6문항)	· 교사 관찰·추천 기간에 대한 인식	3
	· 교사 관찰·추천제의 시행에 따른 사고 육비 경감 효과	9
	· 교사에 의한 영재의 관찰 추천 시 가장 우려되는 점	11
	·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15
	· 교사 관찰·추천제 실시의 어려움	17
· 교사 관찰·추천제의 방향성	14	
교사 관찰 · 추천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5문항)	· 영재 판별에서 주도적인 역할자	13
	· 교사 관찰·추천제 정착에 대한 인식	16
	· 교사 관찰 추천 시 필요한 전문성	12
	· 교사가 원하는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	8
	· 교사 관찰·추천제의 개선점	18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사 관찰·추천제와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판별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의 인지 및 이해 정도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기존의 지필 평가 위주의 방식에서 교사 관찰·추천제로 방식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35명(78.9%)으로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를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교사 143명(21.1%)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의 인지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교사 관찰·추천제를 알고 있다.	535	78.9
교사 관찰·추천제를 알지 못 한다.	143	21.1
합계	678	100.0

표 5에서 보면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 535명(78.9%) 중 ‘업무 담당자에게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429명(63.3%)으로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참여하는 3~6학년의 담임교사들 다수가 학교에서 영재 업무 담당자에게서 전달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사 관찰·추천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에서 보면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 참여하고 있는 3~6학년 담임교사 중 교사 관찰·추천제의 안내 여부에 상관없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50명(36.8%), 교사 관찰·추천제의 안내 여부에 상관없이 ‘잘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394명(58.1%),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

표 5. 교사 관찰·추천제를 알게 된 방법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업무 담당자에게서 설명을 들었다.	429	80.2
각 학교에 배부된 안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74	13.9
영재 교육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16	3.0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4	0.7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12	2.2
합계	535	100.0

표 6.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의 이해 정도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안내를 받아서 잘 알고 있다.	230	33.9
안내를 받았으나, 잘 알지 못 한다.	271	40.0
안내를 받지 않았으나, 잘 알고 있다.	20	2.9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잘 알지 못 한다.	123	18.1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관심이 없다.	34	5.0
합계	678	100.0

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34명(5.0%)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여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표 7에서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안내 여부에 상관없이 교사 관찰·추천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5.8%, 선발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들은 안내 여부에 상관없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2%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 수준 99%에서 교사 관찰·추천제 관련 선발 연수 이수 여부가 교사의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의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사가 중요시하는 과학 영재 아동의 행동 특성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관찰·추천시 교사가 중요시하는 과학 영재 행동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8에서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과학 영재 행동 특성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창의성(78.1%), 인지적 능력(59.4%), 과학적 탐구 태도(53.8%), 성장 가능성(41.1%), 그리고 과제 집착력(39.0%)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과학 영재 행동 특성 중 창의성, 과학적 탐구 태도, 과제 집착력과 같은 정의적 영역이 관심을 기

표 7. 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교사 관찰·추천제의 이해 정도 [N:명(%)]

항목	구분			χ^2
	선발연수			
	이수	미이수	합계	
안내를 받아서 잘 알고 있다.	77 (61.1)	153 (27.7)	230 (33.9)	$\chi^2=61.238$ $p=0.000$
안내를 받았으나, 잘 알지 못 한다.	36 (28.6)	235 (42.6)	271 (40)	
안내를 받지 않았으나, 잘 알고 있다.	6 (4.7)	14 (2.5)	20 (2.9)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잘 알지 못 한다.	5 (4.0)	118 (21.4)	123 (18.2)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관심이 없다.	2 (1.6)	32 (5.8)	34 (5.0)	

표 8. 교사가 중요시하는 과학 영재 아동의 행동 특성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창의성	529	78.1
인지적 능력	402	59.4
과학적 탐구 태도	364	53.8
성장 가능성	278	41.1
과제 집착력	264	39.0
성실성 및 책임감	220	32.5
학습 태도 및 수업 참여도	196	29.0
자기 관리 능력	173	25.6
인성	170	25.1
학업 성취도	114	16.8
동기적 특성	88	13.0
지도력	65	9.6
봉사 활동	30	4.4
합계	2,893	

울인다는 것은 지적 행동 특성뿐 아니라, 정의적 행동 특성도 높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교사가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유형

교사가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제시된 유형 중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직접 실험 설계하여 탐구하는 아동’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교사 263명(38.8%), ‘과학적 지식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동’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교사 107명(15.8%), ‘과학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교사 105명(15.5%), 그리고 ‘교사가 예상치 못한 영똥하고 기발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아동’을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 83명(12.2%)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찰·추천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학업에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과학 영재로 판단되는 아동’ 또는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소외된 계층의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인 아동’을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47명(6.9%)과 3명(0.4%)에 불과하였다.

표 9. 교사가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유형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직접 실험 설계하여 탐구하는 아동	263	38.8
과학적 지식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동	107	15.8
과학 영역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106	15.6
교사가 예상치 못한 엉뚱하고 기발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아동	83	12.2
과학 수업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참여하는 아동	58	8.6
학업에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과학 영재로 판단되는 아동	47	6.9
자신이 관심 있는 과학 영역에만 몰입하는 아동	10	1.5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소외된 계층의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인 아동	3	0.4
기타	1	0.1
합계	678	100.0

이는 교사 관찰 · 추천제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최호성(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교사가 중요시하는 과학 영재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소외되고 잠재적인 영재 아동을 판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교사의 과학 분야에서의 아동의 영재성 판별 가능성

아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 분야에서의 아동의 영재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아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 분야에서의 아동의 영재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6명(39.2%)이고, ‘잘 모르겠다.’와 ‘판별이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는 412명(60.8%)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를 ‘전혀 판별할 수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교사의 영재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판별 결과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안내와 체계적인 연수 없이

표 10. 교사의 과학 분야에서의 아동의 영재성 판별 가능성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매우 잘 판별할 수 있다.	7	1.0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	259	38.2
잘 모르겠다.	153	22.6
다소 판별이 어려운 것 같다.	247	36.4
전혀 판별할 수 없다.	11	1.6
무응답	1	0.1
합계	678	100.0

이루어진 교사 관찰 · 추천제가 일선 담임교사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결과이다.

교사의 성별 · 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영재 아동 판별 가능성은 표 11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과학 영재 판별 가능성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 영재 아동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남교사는 47.7%, 여교사 36.0%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영재 판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김인숙(2012)의 연구의 영재 업무 및 영재 교육 경험과 선발 연수의 경험 비율이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많고, 1정 연수를 받은 후 받은 후부터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는 학교 현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 중 아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 영재 아동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2.4%이고, 선발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 중 아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 영재 아동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6.3%로 나타났다. 이는 선발 연수의 이수 여부가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판별에 신뢰도 99%의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Gear의 영재의 정의, 특성, 판별 준거 등에 대해 판별하기 전에 훈련 받은 교사는 86%의 영재를 옳게 판별했고, 훈련을 받지 않은 교사는 40%만 옳게 판별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사에게 영재의 특성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주어지

표 11. 성별·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영재 아동 판별 가능성 [N:명(%)]

구분	항목	매우 잘 판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다소 판별이 어려운 것 같다.	전혀 판별할 수 없다.	χ^2
성별	N						$\chi^2=11.090$
남자	182	3(1.7)	85(46.0)	39(21.4)	51(28.0)	4(2.2)	$p=0.026$
여자	495	4(0.8)	174(35.2)	114(23.0)	196(39.6)	7(1.4)	
선발연수	N						$\chi^2=13.618$
이수	126	2(1.6)	64(50.8)	26(20.6)	31(24.6)	3(2.4)	$p=0.009$
미이수	551	5(0.9)	195(35.4)	127(23.0)	216(39.2)	8(1.5)	
합계	677	7	259	153	247	11	

고, 적절한 연수나 교육을 받으면 신뢰받는 교사 관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의 활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각 영역별 관찰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관찰시 교육청에서 배부한 과학 영역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가 교사 추천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설문 결과는 표 12와 같다.

과학 영역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가 교사 추천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220명(32.4%), 체크리스트의 활용에 ‘잘 모르겠다.’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458명(67.6%)이었다.

이 중에서 관찰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145명(21.1%)의 의견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학급의 아동이 최종 영재 교육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사의 주관에 개입된 체크리스트의 작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학급마다 다른 담임 개인의 기준으로 평정되는 체크리스트 간의 신뢰성과 타당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표 12. 체크리스트의 활용성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도움이 되었다.	218	32.2
도움이 되지 않았다.	145	21.3
잘 모르겠다.	315	46.5
합계	678	100.0

는 추천인이 영재성에 대해 서술하거나, 영재 특성 체크리스트에 평정할 때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최우수’로 평정하는 것은 오히려 추천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유미현 등(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체크리스트의 활용뿐만 아니라 영재 교육에 대한 연수도 받지 않은 담임교사들은 자신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추천서 작성 시 아동의 어떤 행동 특성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에 따른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활용 결과는 표 13과 같다.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었다고 46%가 응답한 반면, 선발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는 29%만이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보아 교사 관찰·추천제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려면 영재 판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교사에게 연수를 통한 충분한 사전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활용성 [N:명(%)]

구분	항목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χ^2
선발연수	N				
이수	126	58(46.0)	34(27.0)	34(27.0)	$\chi^2=24.173$ $p=0.000$
미이수	552	160(29.0)	111(20.1)	281(50.9)	
합계	678	218	145	315	

6) 추천 아동 수 제한에 따른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교사 추천의 효과성을 연구한 Neber(2004)의 연구에서는 선발 인원이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영재성의 수준을 과대평가하거나, 인지 능력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는 학교별 추천 아동 수 제한이 존재한다. 학교별 추천 아동 수 제한에 따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사들은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해 선발되는 영재 교육 대상자는 작년과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영재 아동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209명, 30.8%)라고 기대하는 교사가 작년처럼 뚜렷한 성과와 영재성을 나타내는 아동이 선발될 것이다(183명, 27.0%)라고 응답하는 교사보다 많았다.

표 15에서 살펴보면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서는 ‘작년과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영재 아동을

표 14. 아동 수 제한에 의한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 (N:명)

구분	빈도 (N)	퍼센트 (%)
작년처럼 뚜렷한 성과와 영재성을 나타내는 아동이 선발될 것이다.	183	27.0
작년과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영재 아동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209	30.8
잘 모르겠다.	286	42.2
합계	678	100.0

표 15. 성별 및 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아동 수 제한에 의한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의 인식 [N:명(%)]

구분	항목	작년처럼 뚜렷한 성과와 영재성을 나타내는 아동이 선발될 것이다.	작년과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영재 아동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χ^2
성별	N				
남자	182	50(27.4)	73(40.1)	59(32.4)	$\chi^2=12.602$ $p=0.002$
여자	496	133(26.9)	136(27.4)	227(45.7)	
선발연수	N				
이수	126	38(30.2)	48(38.1)	40(31.7)	$\chi^2=7.225$ $p=0.027$
미이수	552	145(26.3)	161(29.2)	246(44.5)	
합계	678	183	209	286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 교사가 남교사(40.1%)가 여교사(27.4%)보다, 그리고 선발 연수 유무에서는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38.1%)가 선발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29.2%)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이해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제도의 정착에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류지영·정현철(2010)의 연구에서 교사의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은 지필 평가로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 왔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서 영재의 중요한 특성인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호기심, 높은 동기, 모험심 등 정의적인 측면 등 아동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잠재적 능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숨어 있는 영재들을 보다 많이 발굴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2. 교사 관찰·추천제 시행에 대한 교사의 요구

1) 교사 관찰·추천 기간에 대한 인식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사 관찰·추천제를 실시하면서 영재 교육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영재 관찰 대상자를 선정 한 후 2012년 10월 10일~2012년 11월 16일까지를 관찰 대상자 집중 관찰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교사 집중 관찰 기간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아동을 관찰하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37명(35.0%), ‘아동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기

간'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36명(34.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 관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168명(24.8%)이었다. 아동 관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168명에게 영재 선발을 위한 아동 관찰 시기와 기간은 언제·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설문을 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신학기 초부터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98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류지영(2010)의 연구에서 영재 교육 대상자 관찰과 추천 시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거의 절반인 49.2%의 교사들이 '신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아동

들을 관찰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18에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남교사의 45.1%는 '아동을 관찰하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사의 37.3%는 오히려 '아동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재 행동 특성과 영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남교사가 교사 관찰·추천제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아동의 관찰 기간을 6개월 이상 관찰해야 한다는 관찰 추천제의 취지를 잘 알고 있어서라고 판단된다.

2) 관찰·추천제의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관찰·추천제의 시행이 본래의 취지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4명(19.8%)이다. 반면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469명(69.2%)이고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75명(11.1%)였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맞춘 또 다른 사교육의 등장, 교사의 추천을 받은 아동이 2단계에서 해야 하는 영재성 검사, 학문

표 16. 교사 관찰·추천 기간에 대한 인식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아동을 관찰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237	35.0
아동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다.	236	34.8
아동을 관찰하기에 긴 기간이다.	26	3.8
아동 관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8	24.8
기타	11	1.6
합계	678	100.0

표 17. 영재 아동 선발을 위한 관찰 시기와 기간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신학기 초부터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98	58.3
2학기 초부터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35	20.8
무응답	30	17.9
이전 학년 담임의 정보를 받아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5	3.0
합계	168	100.0

표 19. 관찰·추천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	134	19.8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다.	469	69.2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75	11.1
합계	678	100.0

표 18. 성별에 따른 교사 관찰·추천 기간에 대한 인식 [N:명(%)]

구분	항목	아동을 관찰하기에				기타	χ^2
		아동을 관찰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아동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다.	아동을 관찰하기에 긴 기간이다.	아동 관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별	N						
남자	182	82(45.1)	51(28.1)	7(3.8)	39(21.4)	3(1.6)	$\chi^2=11.679$
여자	496	155(31.3)	185(37.3)	19(3.8)	129(26.0)	8(1.6)	p=0.020
합계	678	237	236	26	168	11	

적성 검사의 존재, 학교에 배정된 추천 인원수에 포함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은 오히려 더 성행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75명(11.1%)의 교사들이 제시하는 사교육비 발생 원인은 표 20과 같다. ‘2단계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대비한 사교육’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6명(48%), ‘1단계의 교사 관찰 추천서를 받기 위한 사교육’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3명(17.3%),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12명(16%)의 교사가 ‘올해 비중이 강화된 3단계의 심층 면접을 대비한 사교육’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교사 관찰·추천제라고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의 명칭은 바뀌었으나, 전형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의 전형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3단계의 심층 면접이 강화되어 구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치러지면서 구술 면접에 대비한 사교육비의 증가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지필 평가로 영재를 선발할 때처럼 학부모와 아동들은 교사 관찰 추천 단계에서 영재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한 실적물과 경력을 쌓기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소영(2011)의 연구에서 교사 관찰·추천제를 통해 영재 교육원에 입학한 영재 교육 대상자들 중 사교육이 영재 교육원 진학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49%의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장 추천과 담임교사 추천 단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3%를 차지하였으며, ‘집중 관찰 수업 때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22%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교육비의 증가를

표 20. 관찰·추천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발생원인

구분	(N:명)	
	빈도 (N)	퍼센트 (%)
1단계의 교사 관찰 추천서를 받기 위한 사교육	13	17.3
1단계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	11	14.7
2단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대비한 사교육	36	48.0
올해 비중이 강화된 3단계의 심층 면접을 대비한 사교육	12	16.0
기타	3	4.0
합계	75	100.0

우려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사교육 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선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사에 의한 영재의 관찰·추천 시 가장 우려되는 점

교사에 의한 영재의 관찰·추천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1과 같다.

317명(46.8%)의 교사가 아동의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인 검사 도구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고, 199명(29.4%)의 교사는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 영재 선발을 우려하였다. 또한 드러난 수행 능력만을 중심으로 영재를 선발할 가능성도 94명(13.9%)의 교사들이 우려를 표시하였다.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별되어 추천되는 영재 교육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발 도구 및 선발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올해 실시되는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교사 관찰·추천제를 학부모는 신뢰하느냐는 설문 결과는 표 22와 같다.

교사 관찰·추천제를 학부모는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03명(19.2%),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03명(44.7%)로 나타났다.

교사 관찰·추천제를 학부모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성 하락, 담임교사의 영재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각 학교마다 다르게 실시되는 관찰·추천제 절차의 객관성 확보 부족, 교사의 편견과 선입견의

표 21. 교사 관찰·추천제 실시에 따른 우려 (N:명)

구분	(N:명)	
	빈도 (N)	퍼센트 (%)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 영재 선발	199	29.4
아동의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인 검사 도구의 부재	317	46.8
드러난 수행 능력만을 중심으로 영재를 선발할 가능성	94	13.9
관찰 추천 교사의 영재 관련 전문성	56	8.3
사교육의 지나친 관심	12	1.8
합계	678	100.0

표 22.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신뢰한다.	130	19.2
신뢰하지 않는다.	303	44.7
잘 모르겠다.	245	36.1
합계	678	100.0

우려가 있는 체크리스트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자녀에 대한 과대평가로 객관적인 판단 오류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전소영(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관찰·추천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검사 도구의 부재, 드러난 수행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학부모의 설문조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문 조사 결과이다.

표 23에서 교사 관찰·추천제를 학부모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교사는 45.6%, 선발 연수를 받은 교사는 57.1%로 오히려 전체의 응답인 4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에 대한 우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5) 교사 관찰·추천제의 방향성

올해 실시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

표 23. 성별·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 [N:명(%)]

구분	항목	신뢰도			χ^2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성별	N				
남자	182	39 (21.4)	83 (45.6)	60 (33.0)	$\chi^2=1.397$ $p=0.497$
여자	496	91 (18.3)	220 (44.4)	185 (37.3)	
선발연수	N				
이수	126	25 (19.9)	83 (57.1)	60 (23.0)	$\chi^2=12.778$ $p=0.002$
미이수	552	105 (19.0)	231 (41.9)	185 (39.1)	
합계	678	130	303	245	

선발 방식이 다양한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 결과는 표 24와 같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응답한 교사(148명, 21.8%)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사(530명, 78.2%)가 더 많았다.

그러나 표 25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31.9%),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31.3%) 그리고 ‘잘 모르겠다.’(36.8%)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여교사의 경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는 18.1%,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는 35.9%,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46%로, 남교사의 경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연수 이수 여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 중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판단한 교사는 32.5%, ‘바람직한

표 24. 교사 관찰·추천제의 방향성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예.	148	21.8
아니오.	235	34.7
잘 모르겠다.	295	43.5
합계	678	100.0

표 25. 성별·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교사 관찰·추천제의 방향성 인식 [N:명(%)]

구분	항목	방향성			χ^2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성별	N				
남자	182	58 (31.9)	57 (31.3)	67 (36.8)	$\chi^2=14.853$ $p=0.001$
여자	496	90 (18.1)	178 (35.9)	228 (46.0)	
선발연수	N				
이수	126	41 (32.5)	45 (38.1)	40 (31.7)	$\chi^2=13.106$ $p=0.001$
미이수	552	107 (19.4)	190 (34.4)	255 (46.2)	
합계	678	148	235	295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교사는 38.1%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31.7%이다. 하지만 선발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 중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판단한 교사는 19.4%,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응답한 교사는 34.4%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46.2%로 나타났다.

남교사 그리고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 집단은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으로 교사 관찰·추천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사 관찰·추천제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1) 영재 판별에서 주도적인 역할자

영재 판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 결과는 표 26과 같다.

담임교사(259명, 38.2%), 영재 교육 외부 전문가(228명, 33.6%), 영재 교육 업무 담당교사(140명, 20.6%), 학부모(45명, 6.6%), 교과 전담 교사(4명, 0.6%) 그리고 학교장(2명,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진경(2010)의 영재 판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담임교사가 가장

표 26. 영재 판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학부모	45	6.6
담임교사	259	38.2
교과 전담 교사	4	0.6
학교장	2	0.3
영재 교육 업무 담당 교사	140	20.6
영재 교육 외부 전문가	228	33.6
합계	678	100.0

표 27. 선발 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영재 판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N:명(%)]

구분	항목	영재 판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χ^2
		학부모	담임교사	교과 전담교사	학교장	영재교육 업무 담당교사	영재교육 외부 전문가	
선발연수	N							
있다	126	7(5.6)	72(57.1)	0(0)	0(0)	16(12.7)	31(24.6)	$\chi^2=24.665$ $p=0.000$
없다	552	38(6.9)	187(33.8)	4(0.7)	2(0.4)	124(22.5)	197(35.7)	
합계	678	45	259	4	2	140	228	

높게 나온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도 영재 판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담임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표 27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영재 판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자로 ‘담임교사(57.1%)’, ‘영재 교육 외부 전문가(24.6%)’ 그리고 ‘영재 교육 업무 담당교사(12.7%)’의 순으로 대답했지만, 선발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들은 ‘영재 교육 외부 전문가(35.7%)’, ‘담임교사(33.8%)’, ‘영재 교육 업무 담당 교사(22.5%)’ 순으로 대답하였다. 담임교사들은 아동을 관찰하여 추천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발은 영재 교육원 소속의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관찰하고 면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판별과 선발하기를 기대한다. 반면 영재 업무나 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선발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건 영재 교육원에서건 교사 관찰·추천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2) 교사 관찰·추천제 정착에 대한 인식

교사 관찰·추천 제도가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잘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8과 같다.

교사의 386명(56.9%)이 ‘영재 관찰 추천 교사의 전문성’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 관찰·추천제 실시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연수’라고 한 응답이 66명(10.2%)로 나타났다. 그리고 66명(9.7%)의 교사가 ‘관찰·추천제에 대한 교사 연수’라고 응답했다.

3) 교사 관찰·추천 시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

관찰과 추천을 통한 영재 판별 체계에서는 영재

표 28. 교사 관찰·추천제 정착에 대한 인식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영재 관찰 추천 교사의 전문성	386	56.9
담임교사의 꾸준한 관찰	40	5.9
관찰·추천제에 대한 교사 연수	66	9.7
관찰·추천제에 대한 학부모 연수	69	10.2
꾸준한 제도의 시행	41	6.0
사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49	7.2
기타	27	4.0
합계	678	100.0

담당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데, 영재 판별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 결과는 표 29와 같다.

64.9%인 440명의 교사가 ‘교육청에서의 영재 관련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 과정을 거친 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의 13.3%인 90명의 교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영재 관련 연수 이수 여부’를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소영(2011)의 연구에서 관찰 추천제도 시행에서 학부모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지속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교사라고 답한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4) 교사가 원하는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 관찰·추천 시 영재를 판별하는 적절한 선발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표 29. 교사 관찰·추천 시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영재 학급 담임으로서의 경력	69	10.2
영재 교육 관련 석사, 박사 학위 소지	50	7.4
교육청에서 실시한 영재 관련 연수 이수 여부	90	13.3
교육청에서의 영재 관련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 과정을 거친 교사	440	64.9
기타	29	4.3
합계	678	100.0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지능 검사나 창의성 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를 통하여’라고 응답한 교사는 84.8%, ‘각종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라고 응답한 교사는 34.3%,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아’라고 응답한 교사는 28.9%, ‘학부모나 자기 추천을 통해’라고 응답한 교사는 9.1%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숙(2005)·윤진경(2010)의 연구,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재혁(2006)의 연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종선(2008)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으로는 지능 검사나 창의성 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를 통하여 판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영재 판별에 있어서 교사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판별보다는 수치로 객관적인 검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들은 주관적 판별 후 주관적 판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 검사나 창의성 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교사 관찰·추천제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교사 관찰·추천제에 참여한 3~6학년 담임교사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교사 관찰·추천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안내의 일정을 3월로 조정하는 것이다. 교사 관찰·추천 기간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237명의 담임교사들이 올해의 관찰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

표 30. 교사가 원하는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 (N:명)

구분	빈도(N)	퍼센트(%)
지능 검사나 창의성 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를 통하여	575	84.8
각종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213	31.4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아	196	28.9
학부모나 자기 추천을 통해	62	9.1
기타	20	2.9
합계	1,046	

관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168명 중 ‘신학기 초부터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98명이었다. 이는 류지영(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담임이 새 학년을 맡게 되는 3월에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안내를 하고, 학부모 추천과 자기 추천의 형식으로 관찰 대상을 선정한 후, 선발 시기까지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아동을 관찰하고 추천하는 업무와 아동의 영재성을 판별하고 선발하는 업무의 분리 운영이다. 영재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은 영재 판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영재 교육 외부 전문가(35.7%)’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담임 교사들은 많은 학급 업무를 하면서 아동의 영재성을 관찰하고 판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업무 가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관찰하고 추천하는 담임 업무와 아동의 영재성을 판별하고 선발하는 관찰·추천 업무의 분리 운영이 영재 판별의 기본 취지에 맞는 아동을 판별하는 데 바람직하다.

셋째, 영재성을 판별하는 관찰·추천 업무를 담당할 영재 교사 전문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당 최소 1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교사 관찰·추천제는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관찰·추천 업무 담당 영재 교사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잠재적 영재들을 객관적인 검사 도구들을 활용, 장기간 아동 관찰, 학부모 면담, 담임교사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협력을 통하여 아동을 판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영재 관련 연수와 다양한 자료를 안내하여 담임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이해도 신장에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 부산광역시 교육청 수준의 영재 pool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학교의 관찰·추천 업무 담당

영재교사가 관찰에 의해 판별한 영재를 수시로 영재 pool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재 교육원이나 교육청 소속의 영재 판별 심의 위원회나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각 영역별 영재 교육과정에 맞는 아동의 최종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영재 관찰·추천의 통로의 다양화이다. 교사 추천뿐만 아니라, 영재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아동 자기 자신, 이전 학년의 교사, 또는 방과 후 강사 등에게도 추천의 권한을 부여하여 영재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면 소외되고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을 찾아내어 그에 합당한 교육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영재 판별 관련 교사 연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전 교사를 위한 영재 교육 연수의 개설이 필요하다. 류지영(2010)의 연구에서 교사들을 위한 심화 연수나 교육을 실시할 때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무엇이 좋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160명(42.8%)의 교사들은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구체적 활용법에 대하여 다루어 주었으면 하였고, 41.4%인 155명의 교사들은 아동들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실습을 직접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실습 위주의 구체적인 정보를 다루는 수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실무 위주의 연수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객관적인 검사 도구의 개발 보급이다. 관찰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아동의 영재성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담임교사와 관찰·추천 업무 담당 영재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 보급하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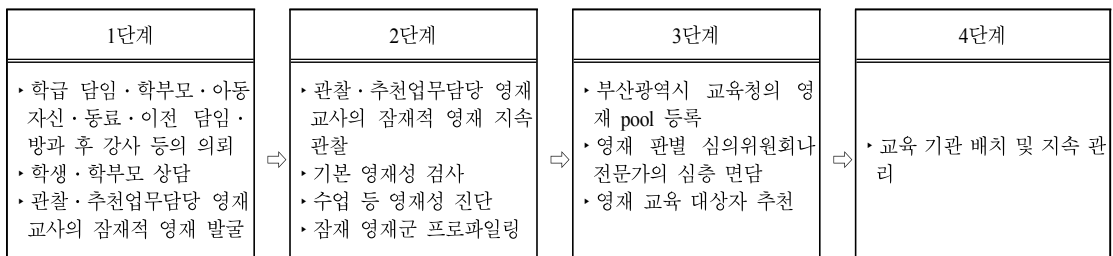


그림 2. 영재 교사의 관찰·추천 과정

이러한 일곱 가지의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한 그림 2의 영재 교사의 관찰·추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교사 관찰·추천제가 그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단계, 잠재 영재군을 형성한다. 담임 또는 교과 교사·학부모·아동 자신·동료·방과 후 강사 등이 학교생활 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잠재적 영재들을 관찰·추천업무 담당 영재 교사에게 의뢰한다. 또한 관찰·추천 업무 담당 영재 교사들은 아동이나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잠재적 영재들을 발굴한다.

2단계, 관찰·추천 업무 담당 영재 교사의 관찰 단계로 영재 교사는 수업 참관 등으로 학교생활에서 잠재적 영재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축적한다. 담임, 교과 교사들과 수시로 대화, 면담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분석하며, 영재성 진단 도구(체크리스트, 프로파일링)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영재성을 테스트한다. 영재성 관찰은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3단계, 영재 판별 아동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재 pool에 등록한다. 그리고 영재 교육원이나 교육청 소속의 영재 판별 심의 위원회나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각 영역별 영재 교육 과정에 맞는 아동의 최종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단계, 영재 교육 기관에 영재 교육 대상자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교사 관찰·추천제에 주체로 참여하는 3~6학년 담임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교사 관찰·추천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사 관찰·추천제 도입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사 관찰·추천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작한 설문지 678부를 SPSS 12.0K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χ^2 독립성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변화된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의 영재 업무 담당자에게서 전달 설명을 듣고 알고는 있으나, 실제 장면에서는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를 관찰·추천하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는 과학 영재 아동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는 데 지적 행동 특성뿐 아니라, 정의적 행동 특성도 인식하고 있으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체크리스트의 활용 능력 부족, 판별 결과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 영재 아동을 판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교사 관찰·추천제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아동의 관찰 기간을 6개월 이상 관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사교육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선발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요구되었다. 아동의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인 검사도구의 부재,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 영재 선발, 드러난 수행 능력만을 중심으로 영재를 선발할 가능성으로 학부모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셋째, 교사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 선발 방식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담임교사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관찰·추천제 추진 과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 안내의 일정을 3월로 조정하고, 아동을 관찰하고 추천하는 업무와 아동의 영재성을 판별하고 선발하는 업무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영재성을 판별하는 관찰·추천 업무를 담당할 영재 교사 전문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영재 판별 관련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운영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수준의 영재 pool의 마련이 기본이 된 영재 교사의 관찰·추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학생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추천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 영재 특성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판별 도구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영재교육 시행계획.

김인숙(2012). 교사 관찰·추천제를 활용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식에 대한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태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김정숙(2005).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선(2008).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 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지영(2010).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 판별에 대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159-178.

류지영, 정현철(2010).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 연구. 영재교육연구, 20

(1), 257-287.

유미현, 강윤희, 예홍진(2011). 과학영재교육원 관찰·추천 방식의 영재선발 분석. 과학영재교육, 3(2), 27-38.

윤진경(2010). 교사와 학부모의 주관적 평정에 의한 영재학생 판별의 타당성 검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진소영(2011). 수학 및 과학 영재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제도에 대한 영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재혁(2006). 초등학교 영재학급 및 지역 공동 영재학급의 운영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호성(2010). 영재성 판별도구의 개발과 적용.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Neber, H. (2004). *Teacher identification of students for gifted programs: Nominations.*

Renzulli, J. S. & Delcourt, M. a. B.(1986). The legacy logic of research on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persons. *Gifted Child Quarterly*, 30, 20-23.

Siegle, D. & Powell, T. (2004). Exploring teacher biases when nominating students for gifted programs. *Gifted Child Quarterly*, 48, 21-29.